

# 정해진 길은 없다

## - 내가 선택한 그 길을 정답으로 만들자

- 이름 : 김수빈
- 근무기구 및 부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STI SIP Steel Unit
- 직위/직급 : 인턴
- 지원경로 : 소속 대학교 글로벌리더십센터를 통한 지원
- 근무기간 : 2021.05.17. - 2021.12.31.

### [들어가며]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여정의 시작

누구라도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은 오랫동안 내 삶의 지향점이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믿음을 갖고 있던 나는 중학생 때 비영리단체에서 근무 중이던 분의 강연을 듣고 처음으로 국제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일은 꼭 우리나라에서만 해야 하는 게 아니구나, 국제기구에 가게 된다면 전 세계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일할 수 있겠구나 처음으로 느꼈다. 언젠가 꼭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품으며 가슴 설레던 15살 소녀가 있었다.

하지만 정말 ‘막연’했다. 당장 눈앞에 놓인 시험과 입시에 치여 세계 반대편에 있는 다른 이의 삶을 걱정할 여유가 없었다. 이런 내가 국제기구에 나아가 누군가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줄 자격은 있을까? 하는 회의감도 종종 들었다. 세상의 수많은 국제기구 중에 어느 곳에 감히 내가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그럼에도 대학 진학 이후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때에 늘 견지하고 있던 한 가지 마음은 사람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것, 나의 능력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다.

우연한 계기로 학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서 인턴을 모집한다는 공고 글을 보게 되었다. 9년 동안 잊고 있던 15살 소녀의 꿈이 떠올랐다. 대강당에서 강연을 들으며 가슴 설레던 중학생이 생각났다. 막연히 꿈꿔오던 그것

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 [OECD 인턴 지원 과정] 탈락의 아픔을 기회로 만든다.

영어라곤 대한민국 12년 교육과정을 통해 배운 게 전부였던 나에게는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양식의 영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더군다나 OECD 인턴과 관련된 정보가 너무 없었다. 머리를 푹푹 싸매며 지원을 마쳤지만 2달이 넘도록 연락이 없었다. OECD 인턴십 공고문에서도 따로 탈락 연락을 주지 않으니 지원 이후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으면 탈락한 것으로 생각하라고 되어있었다. 하지만 지원한 지 2달 반 만에 OECD의 한 부서로부터 연락이 왔고, 면접과 과제 시험을 봤다.

당시 인터뷰에서는 내가 어떤 과제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 나의 단점과 같은 것을 물어봤고, 마지막으로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없냐는 질문에 내가 만약 이 부서에서 일하게 된다면 무엇을 더 준비해가면 좋을지 물어봤다. 그에 대한 면접관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가 당신에게 당신의 단점, 이 과제를 하면서 어려운 점을 물어봤던 것은 당신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이 여기 와서 당신이 자신이 있는 능력을 활용해서 일하고, 못 하는 것을 더 배워서 잘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당신이 잘하는 것에 알맞은 일을 주고, 아직 잘하지 못하지만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여기서 그 능력을 키워갈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인턴이나 신입사원에게도 경력과 능력을 요구하는 한국 사회에 익숙해져 있던 나에게 이 답변은 상당한 충격이었다. 비록 결과는 탈락이었지만, 이 인터뷰를 통해서 내 단점을 약점으로 보고 숨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배울 수 있을까?’의 관점으로 보게 되었다.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아직 내가 이곳에 나아가기는 부족한 걸까 많이 절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OECD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또한 영어로 40분 이상 개인 인터뷰를 본 것이 처음이었는데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

6개월 뒤, 다시 한번 인턴십 모집 공고가 떴고 다시 지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Steel Unit of the Structural and Industry Policy Division(SIP) of the 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STI)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처음에는 전공과 전혀 무관한 철강부서에서 연락이 와서 당황했지만, 인터뷰를 보는 것만으로도 배울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다. 이전에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내가 지금 가진 능력이 무엇이고, 여기서 무엇을 더 배울 수 있을지에 집중해서 인터뷰를 준비했다.

이번에는 사전에 제시된 과제를 수행하고 그 과제를 기반으로 인터뷰가 진행됐다. 향후 나의 사수이셨던 면접관께서 과제를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첫 번째 인터뷰를 기억하며 솔직하게 말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채우기 위해서는 정보의 정확성이 중요한데 공신력 있는 정보를 찾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고, 복잡한 과정을 2차원의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나타내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의 기준을 세워 작성하려고 노력했다고 답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과제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나의 능력 부족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답했다. 면접관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그것이 그분들도 실제로 일하면서 매번 고민하는 부분이었고, 그것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무시하기보다 그 어려움을 발견해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의 방안을 제시한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다.

이 인터뷰의 마지막에도 나는 지난번과 같이 혹시 합격하게 된다면 어떤 것들을 더 준비해 가야 할지 여쭙봤다. 그에 대해 사수분께서는 무언가 더 공부할 필요는 없고 지금 했던 과제를 다시 찬찬히 살펴보며 이곳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무엇을 더 배우고 싶은지 많이 고민해보라고 말씀해주셨다. 결론적으로 나는 이 부서에 합격했고, 2021년 5월부터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OECD 인턴 업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배우다.**

나는 Steel Unit of the Structural and Industry Policy Division(SIP) of the

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STI)에서 철강 산업계의 소유권 구조 변화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업무를 맡았다.

전 세계 철강 산업계는 여러 모회사와 자회사의 인수합병을 통해 그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 기업들의 인수합병 역사를 트래킹하는 것은 철강 산업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는 데 필요하다. 나의 주요 업무는 이러한 철강 산업계의 소유권 구조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인풋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소유권 구조 변화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형태마다 그 특징이 다른데 이를 하나의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나타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복잡한 인수합병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함으로써 여러 정보의 누락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서 데이터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했다. 또한 대기업이 아닌 경우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고, 자료마다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믿을 것인지 판단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최종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상기하며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 사수 분과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인턴십 마지막에는 그동안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결과물을 시각화하여 제안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러한 주 업무 외에도 우리 부서의 주요 행사인 Steel Committee(철강 위원회)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의 초안을 작성하기도 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의 철강 산업 보조금 관련 자료를 조사하기도 했다. 한국 자료의 경우 외국에서 열기 어려운 문서거나 번역하기 어려운 한국어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자료를 조사하여 보조금 관련 사업을 하는 부서를 도왔다. 한국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살릴 수 있어서 뿌듯한 경험이었다.

처음에는 나의 본 전공인 교육학과 다소 무관한 분야이기에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데이터 세트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하는데 고민해야 할 부분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더불어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과정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던 차에, 나의 진로를 구

체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OECD 인턴으로 배운 점] 일, 그 이상의 것을 배우다.

OECD에서의 인턴 경험은 국제기구에 나아가고자 하는 나의 꿈을 더 명확하게 만들어줬다. 국제기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국제기구의 분위기가 어떤지, 이곳에 오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배운 것은 비단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여기서 나는 업무 자체에 대한 능력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깨달았다.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적절한 때’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된다. 때가 되면 대학에 가야지, 때가 되면 취업해야지, 때가 되면 가정을 꾸려야지 등. 사실 우리는 여전히 너무 젊고 어린데, 적절한 때가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압박으로 인해 정말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남들 눈에 괜찮아 보이는 길을 성급하게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당시에 나는 향후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지만, 그 도전을 하게 되면 남들보다 졸업이 늦어진다는 생각에 고민이 많았다.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사수분은 이렇게 답해주셨다. “나는 남들보다 학부도, 석사도, 박사도 늘 늦게 졸업했어. 어느 하나 빠르게 한 게 없지. 하지만 지금을 봐. 지금 와서 40살이나 42살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 지금은 네가 젊으니까 1년, 2년이 너무 크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막상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천천히 가도 괜찮아. 26살에 학부를 졸업하는 게 뭐가 늦어? 오히려 그 젊은 날에 할 수 있는 많은 경험을 하는 게 더 값진 게 아닐까?”

실제로 그곳에서 세계 각지에서 온 뛰어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누구 하나 정해진 하나의 길로 그곳에 온 사람이 없었다. 각자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고, 거기에 느리고 빠름은 없었다. 더 이상 남들이 생각하기에 늦었다는 변명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았다. 어느 길에도 정해진 답은 없다. 길을 선택하는 것은 나의 몫이고, 나는 그저 내가 선택한 그 길을 정답으로 만들면 될 뿐이라는 큰 교훈

을 얻었다.

## [끝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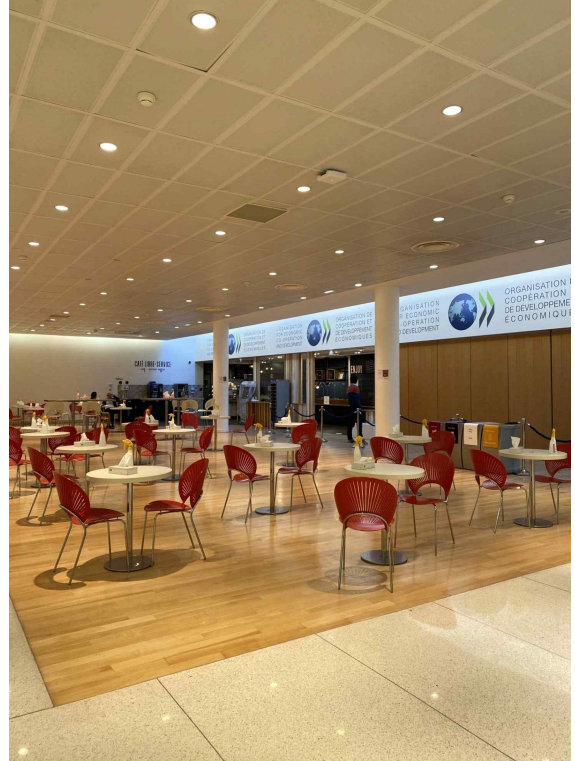
종종 사람들은 인턴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물어 본다. 이 질문에 나는 쉽게 답할 수 없다. 석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학부생으로서 이곳에 지원하는 것조차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인턴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었기보다는 당시 그 부서가 내가 가진 경험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국제기구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경험과 능력, 그리고 타이밍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지원하는 그때 어떤 부서가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할지는 아무도 확답할 수 없다. 결국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만의 경험과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닿을 수 있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앞서 인터뷰 사례에서도 언급했듯, 이곳에서는 인턴으로서 무엇보다 배울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을 기다린다. 스스로가 해온 일들을 점검해보며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고 앞으로 어떤 것을 더 배우고 싶은지 고민해보는다면 좋을 것 같다.

이곳에서 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배웠고, 더 넓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다. 결국 삶은 정해진 답을 찾는 것이 아닌 내가 선택한 길을 나 스스로 정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배웠다.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방법에도 정답은 없다. 나의 경험도 그저 수많은 길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나아가고자 하는 길에 이 경험이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길 바라며 이 글을 끝마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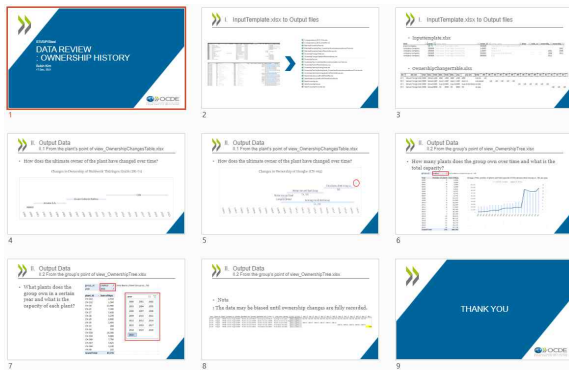
## 별첨



한국의 OECD 가입 25주년 기념행사



OECD La Murette Red Chair Cafe



데이터베이스 시각화 및 활용 방안  
제안 발표 자료